

# 한유총 비대위 “유아교육 개혁 백의종군”

### 정부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부담·발전재단 설립 제안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 증인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 비대위가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경위와 원인을 소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권이 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겠다”며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 대열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립유치원들이 비리의 주범으로 내몰렸고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제도적 구분이 되지 않는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은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부작용을 탄생시켰다”며 이번 비리유지원 사태의 원인을 정부 측으로 돌렸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던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 보장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에서 재산권이 보장되면 비리여부에 대한 기준

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어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원비의 적정성과 향후 교육수요계산 등 사립유치원 정책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전문가 집단인 사립유치원발전재단을 설립해달라”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이번 기회에 한유총은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열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입찰 것을 국민과 학부모 앞에 각오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서초등학교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소통 '2018 꿈누리 행복축제'를 실시했다.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소통

### 군산서초 꿈누리 행복축제 열려

군산서초등학교 (교장 이일령)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소통 '2018 꿈누리 행복축제'를 실시했다. 이번 축제는 1부에서는 다목적실에서 '꿈누리 어울마당'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학습발표회가, 2부에서는 본교 운동장에서 '꿈누리 체험 마당'으로 6개의 생태체험 및 2개의 편편

마당으로 진행했다. '생태체험마당'에서는 민화예코백 만들기, 원목 피리 만들기 등 6개 체험부스가, '편편마당'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재능기부로 떡볶이 및 어묵 마당이 펼쳐졌다. 이일령 교장은 “체험마당 운영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18 전북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 대학생 클럽대항대회 성료... 심신 단련·건전한 여가 기회 제공

### 축구 D.Football · 농구 장장군 · 볼링 케글러스팀 우승

'2018 전북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여가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한 대학생 클럽대항대회가 28일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회는 대학교 동아리클럽 상호 교

류를 통한 클럽활동 촉진 및 대학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축구와 농구, 볼링 등 3개 종목이 전주 완산생활체육공원과 전주고등학교 등에서 진행됐다. 클럽대항 리그 및 토너먼트로 진행됐고 총 51개 클럽 605명이 참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종목별 우승팀을 보면 먼저 16개팀 284명이 출전한 축구에서는 D.Football 팀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라이징FC팀이 3위는 FC혼과 LBH팀이 차지했다. 15개 클럽이 참여한 농구에서는 장장군팀이 1위에 올랐고, 코트맨팀이 2위를 가운팀과 지니어스팀이 3위를 차지했다. 20개팀 170명이 대결을 펼친 볼링에서는 케글러스(원광대)팀이 1위를 차

지했고 체리팀(우석대)과 스피래시팀(전북대)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잠시나마 학업과 취업 걱정 등을 떨쳐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며 “대학생 뿐만 아닌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에코시티 공동주택개발시행사, 초·중학생 통학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주)에코시티개발, (주)KCC건설, (주)포스코건설, (주)한백종합건설, 상명예고개발(주), 일신건설(주) 등 6개 시행사와 에코시티에 입주하고 있는 초·중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

혔다. 이번 협약은 에코시티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초등학교(가칭 봉암초 2020년 3월 개교예정) 및 중학교(가칭 화정중 2020년 3월 개교예정) 개교 시기 불일치로, 유입 학생들을 개교 전까지 송천동 인근 초등학교

(전주송북초등학교, 전주신동초등학교) 및 중학교로 분산 배치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통학차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 및 관리하며, 에코 시티 공동주택 개발시행사는 통학차

량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에코시티에 입주하고 있는 초·중학생들의 통학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성 기자

## 혁신교육의 철학과 비전 공유한다

### 도교육청, 예비교사 대상 아카데미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군산대와 원광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군산대 교직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원광대 사범대학 재학생은 31일과 11월 7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육과정, 혁신교육과 참학력 이해, 인성과 자치를 존중하는 인권교육, 학생이해 및 의사소통이 살아 있는 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선배 교사들과 함께 학습공동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길러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중요시 되는 교육과정·수업·학생평가 사례, 인성인권 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이들이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학교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원으로 임용될 사범대와 교직과정 학생들이 전라북도혁신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접함으로써 학교현장 적응력을 높일 것”이라며 “예비교사들의 미래역량을 높이고 전라북도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